

http://dx.doi.org/10.17703/JCCT.2022.8.3.283

JCCT 2022-5-35

퇴계선생의 감각경험과 심적반응의 의학생리학: <도산십이곡>중 제4곡을 중심으로

The Physics of Toegye's Sensational Experience and Mental Response: The Study on the 4th Song of <Dosan-Shi-I-Gong>

김명희*

kim mung hee*

요약 시조치료는 우울증을 극복하고 존재의 진정성을 확립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퇴계선생의 시조 <도산십이곡>의 이미지의 양상이 의학생리학적 감각경험과 심적반응을 융합하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퇴계선생의 시조 <도산십이곡>은 생명력을 활성화시키는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 선생의 시조는 존재의 진정성을 창조하는 원리가, 인체의 감각경험과 심적반응을 통해 우울증을 극복하고 지금-여기, 존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퇴계선생의 시조 <도산십이곡>중 제4곡이 어떤 치유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증명한다. 따라서 향후 감각경험과 심적반응에 대한 시조치료 연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퇴계선생, 도산십이곡 제4곡, 감각경험, 심적반응, 의학생리학, 시조치료

Abstract Sijo therapy is to overcome depression and establish the authenticity of existence.,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ether the image of Toegye's Sijo <Dosan Sigok> fuses the medical and scientific sensory experience with mental reaction.,Toegye's Sijo <Dosan Siggok> is operated by the principle of activating vitality.,The teacher's sijo is to help the principle of creating the authenticity of existence to overcome depression through the sensory experience and mental response of the human body and to change the life of existence now - here.,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ve the healing power of the fourth song of Toegye's Sijo <Dosan Sikyo>.,In the future, it is meaningful that the study of Sijo therapy on sensory experience and mental response is provided as a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help medical student understanding.

Key words : Toegye Teacher, Dosan Twelve Song 4th Song, Sensory Experience, Mental Response, Medical Student Theory, Sijo

*정회원, 경기대학교 대학원 (제1저자)

-동시집 “딸가닥딸가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선정
-시조집 “파도, 파도를 그리다” 한국문화예술진흥기금 수혜
-시조집 “오지 못하게” 문예진흥기금 수혜
-자기치유계발서 “희망의 메아리 긍정 자존감” MBN ‘이달의 도서’ 선정

접수일: 2022년 4월 21일, 수정완료일: 2022년 5월 5일

게재확정일: 2022년 5월 8일

Received: April 21, 2022 / Revised: May 5, 2022

Accepted: May 8, 2022

*Corresponding Author: kmhkd145@hanmail.net

Dept. of Liberal Arts, Catholic Sangji Univ, Korea

1. 서론

1) 시조치료적 접근 시도

본 연구에서 우울증은 “생물학적 요인이나 개인적 특성에 근거한다.” 동시에 “외인성 사건 또는 반응적 사건[1]”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시조 치료 관점에서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존재의 진정성을 또렷이 일깨워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둔다. 우울증은 자기 비난, 통제, 억압 같은 특성으로 가득 차서 뭔지 모르게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된다.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텅 빈 부분을 채우려 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시조치료는 우울증과 관계하는 의학생리학적 “감각경험”과 “심적반응”[2,3]을 통해 지금-여기, 존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시조치료란 우울증을 극복하고 존재의 진정성을 확립시키는 것이다. <도산십이곡>[4]이 시조작품으로서의 치심(痴心:마음을 다스리다), 즉 마음 다스리기는 방안은 제대로 규명된 것 같지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퇴계선생의 자기서사를 전제로 하여, 시조 <도산십이곡> 중 제4곡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에 의학생리학적 감각경험과 심적반응을 통해, 존재의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치심은 존재의 근원을 창조하는 원리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이든 간에, 무엇을 희망하든지 간에,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때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억압된 것들로부터 탈피하여, 마침내 자유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 <도산십이곡> 중 제4곡에 나타난 이미지의 강렬성은 환기력을 변환시키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에 의학생리학적 감각경험과 심적반응이 무기력증과 내면에 억압된 것들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한 증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치유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퇴계선생의 시조 <도산십이곡> 중 제4곡은 본 연구의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의학생리학적 감각경험과 심적반응과 관계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퇴계선생의 본 <도산십이곡> 대한 선행연구들 중에 제4곡에서 심적반응으로 간주되는 “피일미인(彼一美人)”에 대한 4가지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안형조[5]는 “여기서 미인, 즉 ‘고운 님’은 고인(古人)을 가리키며,

그 가운데서도 ‘주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였다. 한미례[6]는 “2곡의 태평성대가 임금을 향한 마음, 즉어진 임금이 태평하게 다스리는 세상이라면 임금에 대한 충심의 의미라고 해석한다면 여기서 미인은 임금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의미로 퇴계가 그리워하는 사람이라면 ... 미인은 성현(聖賢)을 이야기하는 것에 의미가 실린다.”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정작 은거의 주인공은 판 데 마음이 가 있음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뚜렷한 해석을 내놓지는 않았다. 김석희[7]는 “표층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안도감과 정반대에 놓인 정서지향이라 할 만하다”라고 했다. 이것은 “마치 ‘속마음 털어내기’치유상담과도 같은 절차”가 “구현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셈이다”라고 시조의 치료적 가치에 대해 언급했다. 류해춘[8]은 “유란과 백운처럼 가치 있는 천인합일(天人合一)적인 인물로 그려내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천인합일적인 인물이란 성리학의 연마를 통하여 천인합일의 이치를 깨달아서 자연스런 삶을 살아간 인물인 유학자를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류해춘은 “퇴계에 있어 그러한 인물은 삶의 지표가 되었던 정자나 주자와 같은 송나라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들처럼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퇴계의 성리학 사상에 비중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앞에서 “피일미인(彼一美人)”에 대한 선행 연구 4가지를 살펴본다. 안형조는 “피일미인(彼一美人)은 ‘고인’ 혹은 ‘주자’라고 하였고, 한미례는 “임금”, “성현”으로 해석하였고, 김석희는 “정서지향”이라는 치유상담 절차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류해춘은 “정자”나 “주자” 같은 성현이라고 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들 성현처럼 퇴계선생 자신이 완전한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등 모두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본 연구는 <도산십이곡> 중 제4곡에서 “피일미인”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퇴계선생의 의학생리학적 감각경험과 심적반응에 대한 시조의 기능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심적반응을 일으키는지 그 효과에 대해 탐색하려고 한다.

2) 시조치료의 개념

본 연구에서 시조치료는 우울증을 극복하고 존재의 진정성을 확립시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삶은 의학생리학적 감각경험과 심적반응의 결합의 조절이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원리에 따르는 반응이라 하겠다. 의학계열 교수 32인이 공역한 저서 『의학생리학』에 따르면 “감각경험은 뇌를 통해 즉각적 반응을 일으키거나, 경험으로 얻는 기억은 수분, 수주 또는 수년 동안 뇌에 저장되어 앞으로 예상되는 신체반응을 결정하도록 한다.[8]” 그러니까 하면, 심적반응은 뇌의 “신경계에 유입되는 정보에 대해 적절한 심적반응 및 운동반응을 일으키도록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감각정보가 마음을 자극할 때, 그것은 즉시 적절한 뇌의 통합영역과 운동영역으로 정보를 전하여 원하는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데, 그것이 “신경계의 통합기능”이다.[9,10,11] 시조치료 관점에서 보면, 뇌 중추신경계의 통합기능은 상처로 인해 복잡다단한 마음을, 이미지나 상징, 은유, 풍자, 해학 등 어떤 언어로는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같이 감각경험과 심적반응은 기억과 관계한다. 이 기억은 감각경험으로서 뇌에 저장된 세계에 대한 단순한 그 무엇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겠다. 가령, 별을 아버지라고 고정해 놓으면 이미 그 의미가 결정되어 있어 별이라는 소재를 가공할 여지가 있는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반면, 심상반응은 어떤 것에 의해 그 의미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유와 넓은 인식의 환원을 거쳐 언어의 의미가 무한히 자유롭게 구성된다는 점으로 보아 뇌의 활성화가 강화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같이 <도산십이곡> 중 제4곡은 감각경험과 심상반응이 지금-여기, 존재의 시공간 속에서 세계를 새롭게 탄생시킨 것이다. 존재가 세계를 바라봄으로써 뇌에 입력되고 출력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세계라는 현상의 차원을 넘어서 존재의 진정성을 확보하였기에, 낯선 세계를 출현시키는 것이다. 이같이 퇴계선생은 깊고 큰 사유 내지 심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통해 기존의 사물이 다른 무엇으로 출력되는, 그러니까 무한한 의미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감각경험과 심적반응은 다양한 시어로 형상화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시조치료와 의학생리학적 동력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마음의 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유를 통한 우주 삼라만상에 대한 동일화 혹은 투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동일화 혹은 투사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상은 다양한 존재들이 우주자연 현상

속에서 저마다의 궁극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통찰하게 되는 것이다. 궁극적인 양상을 통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도산십이곡> 중 제4곡을 통해 인간의 정서가 만물에 깃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우주 삼라만상이 존재의 진정성을 지속적 영위해나가게 한다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보다 삶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동력이 작동된다는 의미이다.

시조치료 관점에서 인간 존재의 진정성은 우울증에 압착이 되어 삶이 피폐해지는 것과는 달리 자신의 감정의 흐름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것을 요청한다. 우울한 기분이 회오리칠 때 존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본질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주 삼라만상이 그러할진대 온유한 마음으로 자신 내면 속으로 들어가 다양한 시각으로 우주 자연, 즉 삼라만상을 조명하면서 자기탐구를 위한 도구로 <도산십이곡> 중 제4곡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존재의 진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울증으로 무기력하거나 내면에 억압된 정서 등 다양한 감정의 격변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그것들의 움직임 자체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몸과 마음의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무의식적으로 존재 안에 들어 있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인간, 존재의 진정성 속에는 감각경험과 심적반응이 무의식적인 운동으로 의해 외부의 감각이 자연스럽게 뇌의 신경계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즉 감각경험이 뇌의 시냅스를 통해 치유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그와 같은 원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성을 확립시키기 위해, 감각경험과 심적반응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을 새롭게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존재자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을 알아차리게 할 뿐 아니라 그것에 적극적 대응하게 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존재의 내면으로 들어가 우울증을 치유하고 자유를 추구하게 될 때, 내적인 힘의 원천이 몸과 마음, 육체와 정신에서 발산됨으로써 일종의 쾌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산십이곡> 중 제4곡은 우울증을 치유할 존재의 진정성을 확립시킬 수 있는 감각경험과 심적반응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표현

하자면, 인간 존재는 우울 상태 속에서 더는 무기력증에 휩쓸리지 않고, 우주 삼라만상을 새롭게 통찰하게 되면 치료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II. <도산십이곡>, 제4곡에 나타난 시상 전개 양상

시상 전개는 어떤 원리에 의해 형성되는 것보다 퇴계선생의 지금-여기, 존재의 진정성을 확립하는 것에 있다. 하나의 시상은 감각경험과 심적반응의 결합을 통해 의미를 생성한다. 눈에 보이는 사물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자유까지도 명료하게 나타내는 의미와 양상은 시인의 능력이다. 보이지 않는 영혼과 자유 같은 추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감각경험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심적반응 또한 판가름이 난다. 그러기에 세계에 대한 감각경험에 의해 심적반응이 발생하며 동시에 의미 구조를 생성함으로써 세계는 세계를 넘어선 그 무엇이 되는 것이다.

퇴계선생의 <도산십이곡> 중 제4곡은 상하구조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시조를 통해 그 의미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유란이 재곡하니 자연이 듣기 좋고,
백운이 재산하니 자연이 보기 좋아.
이 중에 피미일인을 더욱 잊지 못하네.

—퇴계, <도산십이곡> 중 제4곡

이 시에서 초장과 중장은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전개 양상이다. 산골짜기에 “유란”이 자욱하다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은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골짜기의 난초가 그윽하다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듣기 좋고”에 핵심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자욱한 난초들이 속삭이는 청각적 이미지를 변용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시어를 비틀어버림으로써 난초의 특징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역동적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시상 전개는 시청각이라는 공감각적인 배경의 장치로 왕성한 생명력을 환기하여 시적 긴장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미적 가치와 치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중장 역시 “백운이 재산하니”는 흰 구름이 산봉우리를 감도는 시각적 이미지의 형상이다. “흰 구름”은 동태적이고, 우주 자연을 잇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환기력은 산봉우리와 결합해 의미가 단선화 되는 것을 지양하고 햇살이 눈부시게 맑다는 복선을 깔고 있다. 이렇듯이 시상 전개는 서로 다른 이미지들, 즉 ‘산’이라는 정적인 구조와 ‘흰 구름’의 동적인 구조를 교차시키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햇살이 눈부시게 맑다는 의미를 숨기면서 말하는 방식으로서 그 미적 가치와 치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뇌의 속성이 어떤 감각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심적반응으로 인해 이미지의 양상은 판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맥락이다.

한편, 이 시는 초장의 “골짜기”에서 중장의 “산봉우리”로 올라가는 점층법 운용으로 상승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초장의 난초의 정적인 이미지와 중장의 흰 구름의 동태적인 이미지는 시적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구조로, 시가 탄력적이고 질감을 획득하게 되는 미적 가치와 치유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나 전체적 이미지를 “이 중에”라는 것에 휴지부를 둠으로써 “피미일인”에 강세를 주고 있는 것은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 기법으로 창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퇴계선생이 우주 자연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은 안온함으로 이끄는 길이며, 더구나 그 자체가 천인합일을 추구한 존재의 진정함이 강하게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미일인”은 궁금증을 촉발케 하는 미적 기능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피미일인”은 <도산십이곡> 중 제 9곡 초·중장에 “고인(古人)도 날 못보고 나도 고인(古人) 못 봐/ 고인(古人)을 못 봐도 예던 길 앞에 있네”와 굳이 연결해 본다면, 먼저 간 그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은, 노년의 퇴계선생이 지금-여기, 존재의 심리적 공간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딱히 누군지를 알 수 없지만, 성리학의 정수를 알게 한 정자인지, 주자를 비롯한 성현인지, 일찍 세상을 떠난 허씨 부인인지, 허씨 부인이 떠난 후 새로이 맞았지만 먼저 세상을 떠난 권씨 부인인지, 그도 아니면 어릴 적 세상을 떠난 가슴 깊이 묻어둔 둘째 아들 ‘채’인지 명확하지 않게 함으로써 암시성을 띠고 있다는 데 미적 가치와 치유 가치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중에”는 우주 삼라만상을 말하고 있는데, 그 우주 삼라만상 속 “피미일인”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다른 의미를 지닌 상징일 수

있다. 하지만 퇴계선생이 추구한 천인합일의 정신세계, 다시 말해 우주 삼라만상과의 동일화로써 ‘경지의 극점’에 이르면 경계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피미일인”은 과연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살펴보자.

- ◎ 마음은 곧장 천지 만물과 더불어 위와 아래에서 함께 유행하여, 각기 거기에 따르는 신묘한 작용을 얻음이 있었다. [12]
- ◎ 밤중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앉으면 달과 별이 밝게 빛나고 강산이 조용하여, 마음이 영킨 듯 고요한 듯 생각이 혼연히 한 덩어리가 되어 구분이 안 된 상태이다. [13]

앞에서 살펴본 바와 달리 퇴계선생의 시조에 상징성을 띠고 있는 “피미일인”이 드러난 글을 한 번 살펴보자. 『퇴계집Ⅱ』에 따르면, 퇴계는 산과 물은 스스로를 한탄하지 않는데 자신은 한탄을 하니 스스로 어리석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한탄함은 보통 사람들에게 알려 알려지지 못함을 한탄함이 아니고 ‘탁영공’에게 알려지지 못함을 한탄한 것이라고 한다.

탁영공의 기문에 “말을 단구에 세우고 가은(可隱)을 바라보니, 희미하게 신선될 <난가(爛柯)라는> 생각이 있다.” 하였으니, 이는 비록 귀담을 보지 못하였으나 귀담의 정승함은 이미 홀로 가슴 가운데 얻은 것이니... 특히 한 읍안의 신령스럽고 참된 경지인 적성산(赤城山) 같은 유는 나의 노는 곳이 아직 미치지 못하였으니, 또 다시 귀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어 나의 얻는 바가 무궁하게 될 것인지 어찌 알겠는가. 이해 6월 모일에 진정 이황은 쓴다. [14]

이같이 퇴계선생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읍내에 있는 가은의 아름다운 산수의 전경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탁영공은 김해에서 와서 가은을 보고 감탄했다는 것을 알고 퇴계선생 자신은 그곳의 심오함을 볼 줄 몰랐다는 것과 탁영공은 우주 자연에 심취되어 퇴계가 알고 있는 그 너머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탁영공을 우르러 보고 있는 대목이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퇴계선생이 책을 읽고 연구와 사색을 했지만 탁영공처럼 어떤 경지에 이르지 못한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미일인”은 탁영공이라 볼 수 있다.

II. 감각경험과 심적반응의 양상

시조치료에 있어, 인간은 감각경험과 심적반응에 의해 언어가 성립하는 양상이 드러난다. 시조는 3장 6구의 구조가 연속적 운용을 이루고 있어 의학생리학적 현상을 통해 그 의미 연결이 치유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은 영혼을 지닌 존재로 우주만물 속에서 창조 본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요청한다. 존재의 진정성의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어는 다른 시어와의 연결 의미를 거치게 되는 뇌의 기능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시조치료 기능과 관계에서 볼 때, 의학생리학에 따르면 뇌에는 “인간의 중추신경계는 천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다.” 여기에 “유입되는 신호는 시냅스를 통해 주로 신호가 앞 방향으로만 전달”되는데 이는 “필요한 신경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방향으로 신호가 전달된다. [15]”는 것이다.

특히 뇌 활동에서 “특정 감각 신호가 연속적인 시냅스를 통해 전달될 때마다, 이들 시냅스는 종전과 같은 신호를 다음에 더 많이 전달하게 된다”고 한다. 뇌가 그러할진대 좋은 시조작품을 읽으며 긍정적인 언어를 연속적으로 습득하게 되면, 뇌의 사고 과정은 새롭고 중요한 정보를 선택하도록 내적 상호관계를 맺고 있어 그 파급효과는 실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독자가 시조를 읽고, 쓰고, 느끼고, 낭송하기 등은 신경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이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긍정적인 마음 자세로 자기 성장에 집중하게 되면 치유가 훨씬 더 크게 일어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고 하겠다. <도산십이곡> 제4곡은 지금-여기, 존재의 감각경험과 심적반응에 관한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조를 통한 치유의 가능성은 상처 난 마음을 어루만지고,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아주 값진, 그러니까 마치 하늘 높이 비상하는 갈매기처럼 자유로운 시공간의 삶을 사는 일일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산십이곡> 중 제4곡, 감각경험과 심적반응의 양상을 살펴보자.

<그림1>에서 퇴계선생의 감각경험과 심적반응은 암시적인 양상을 드러낸다. “골짜기 → 산 → 피미일인”

이라는 식으로 시상의 자연스러운 전개에 따라 언어를 운용하였다. 이는 마치 새가 하늘을 비상하다가 땅에 사뿐히 내려앉는 양상의 구조를 보이면서 암시적인, 즉 산을 극대화에 따른 형식은 자연스럽게 심층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종장의 “이 중에”는 우주 삼라만상 사이에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쉬의 공간, 즉 휴지부에서 영감을 불어넣고 “피미일인”을 가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피미일인”을 끌어온 것은 결코 말로 할 수 없는 동경이 숨어 있어 상징성을 띠고 있다. 역설적으로 시적 화자는 마치 ‘나는 너 안에서 나 자신을 본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인간은 인생 여정에서 가치 있는 흔적을 남기고 싶어 삶을 변화시키고,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운데 풀어낼 수 없는 인생의 비밀을 풀어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긴장감이 조성될 뿐 아니라 미적 가치와 치료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감각경험은 시냅스계의 동력에 의해 심적반응을 일으켜 사뭇 다른 언어를 끌어오게 한다. 그 언어는 의미 확장을 하여 독자에게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그림2>의 구조를 생성하는 시어는 초장의 골짜기에서 종장의 산봉우리로 이동하는 상승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난초에서 흰 구름으로 옮겨가는 상승구조의 이미지 양상은 봄이 왕성한 기운이 상승하는 집중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이미지를 적절히 교차해서 이미지의 너머의 어떤 것을 보게 하는 효과가 잘 운용되고 있어 보이지 않는 심적반응을 그려내는 데 미적 가치가 있으며, 동시에 치료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에 성공하고 있다. 이 시의 핵심은 독백 형식이 강화된 “더욱 잊지 못하네.”에 있다. 여기에서 잊지 못하리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여기, 존재의 강한 의지력을 나타내는 “~네.”의 종결 의미에는 화자의 단호한 ‘심적반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은 <그림1>,<그림2>의 이미지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시상의 전개 역시 초장에서 우주 자연의 질서의 원리를 강화하고 종장에서 “산봉우리”와 “흰 구름”은 정적인 양상과 동태적인 양상의 경계마저 허물고 있는 안정적인 구조이다. 그런가 하면, 종장은 주관적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감각경험과 심적반응을 나타내는 시냅스의 신호가 전달되는 방향이 어떤 효과를 빚어내고 있는지와 연관되어 있어

그렇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뇌의 시냅스의 특성에 의해 유입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뇌의 시냅스의 특성은 신호가 필요한 신경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부분 “신호가 앞 방향으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방향으로 전달되기도 한다는 점을 놓쳐선 안 된다.) 이는 시조치료에 있어 언어가 감각경험을 통해 심적반응에 상당한 탄력을 주는 변조에 의해 의미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시냅스의 기능이 제4곡을 통해 의학생리학적 치유의 기능은 물론, 시조치료에 있어서 시어나 의미 구조 연결이 치료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곧 언어의 의미 구조는 우울증으로 구멍난 마음을 즐거움, 기쁨, 사랑, 평화로 채울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필자의 논문 <퇴계선생의 양생사상과 시조를 활용한 문학치료 연구>[16]을 활용한 문학치료 연장선상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III. 결 론

본 연구는 퇴계선생의 시조 <도산십이곡>의 이미지의 양상이 의학생리학적 감각경험과 심적반응을 융합하는지 탐색한 것이다. 시조치료는 우울증을 극복하고 존재의 진정성을 확립시키는 것이다. 시상 전개에 나타난 이미지의 양상이 왕성한 생명력과 환기력으로 우울증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지금-여기, 존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의 힘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 같이 시조에 나타난 이미지와 의미의 구조는 의학생리학적 감각경험과 심적반응의 현상에 의해 도출된다. 의미 구조는 시어의 연결로서 주제를 인식적, 다시 말해 시조정신세계를 전달하는 매개는 부호화로 드러났다.

우울증은 생물학적 요인이나 개인적 특성에 근거하거나 외인성 사건 또는 반응적 사건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감각경험과 심적반응이 뇌의 신경계와 관계하는 것으로서 시조의 시상 전개는 언어가 뇌작동을 활성화시키게 된다는 것은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왕성한 봄날의 생명력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체가 감각경험과 심적반응에 의해 나타난 이미지의 강렬성은 환기력을 변환시키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감각경험과 심적반응이 무기력증과 내면에 억압된 것들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한 증상을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는



그림 1. 시상 전개에 있어 감각경험에 의한 심적반응 관계를 보여주는 도식

Figure 1. Breakfasts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response by sensory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of thalam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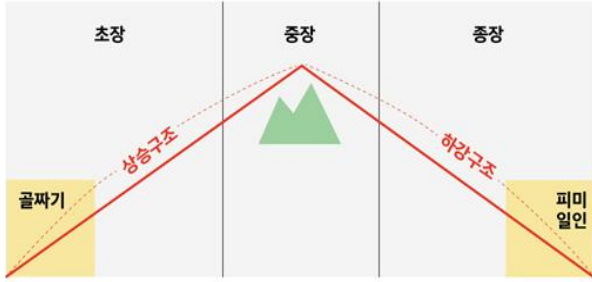


그림 2. 신경계의 감각경험과 심적반응 양상을 보여주는 도식

Figure 2. A schema showing the sensory experience and mental response of the nervous system

그 치유적 기능에 내재되어 있다. 퇴계선생의 시조 <도산십이곡> 중 제4곡은 마치 새가 하늘을 비상하다가 땅에 사뿐히 내려앉는 양상의 구조를 보이면서 암시적인, 즉 산을 극대화에 따른 형식은 자연스럽게 심층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중장의 “이 중에”는 우주 삼라만상 사이에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쉼의 공간, 즉 휴지부에서 영감을 불러넣고 “피미일인”을 가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피미일인”을 끌어온 것은 결코 말로 할 수 없는 동경이 숨어 있어 상징성을 띠게 함으로써 퇴계선생 자신 존재의 진정성을 성립시키고 있다.

인간은 인생 여정에서 가치 있는 흔적을 남기고 싶어 삶을 변화시키고,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운데 풀 수 없는 인생의 비밀을 풀어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도산십이곡> 제4곡은 긴장감이 조성될 뿐 아니라 미적 가치와 치료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듯 뇌의 감각경험은 시냅스의 동력에 의해 심적반응을 일으켜 사뭇 다른 언어를 끌어오게 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향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에너지의 장이다. 그런 시의 언어는 의미 확장을 통해 감각경험과 심적반응을 나타내는 시냅스의 신호가 전달되는 방향이 어떤 효과를 빚어내고 있는지와 연관되어 있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퇴계선생의 시조 <도산십이곡>은 생명력을 활성화시키는 원리가 내재해 있다. 동시에 퇴계가 우울한 상태를 극복하는 존재의 진정성을 창조하는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인체의 감각경험과 심적반응을 통해 시상 전개와 시의 의미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우울증을 극복하고 지금-여기, 존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퇴계선생이 추구하는 천인합일 사상과 생활철학을 실천한 것은 자기서사를 이뤄나간 행보이다. 이러한 그의 시조는 이미지를 통한 의미 연결과 의미 확장의 구조는 의학생리학적 경험감과 심적반응 역할로서 충분한 치유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의학생리학적 감각경험과 심적반응에 대한 시조치료 연구가 지속되어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개발하여, 그들이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들은 페러다임을 전환하여 의학생리학적으로 더 효과적인 임상에 사용할 정도의 수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

References

- [1] Karin C. Vanmeter, Robert J. Hubert co-authored by Choi Myung-ae, Lee Kyung-sook, Jeong Jae-sim, An Kyung-ju, Chae Young-ran, and others, 2014,373
- [2] 2 medical professors, Conduct, Medical Sciences, Vermun Education, 2017, 575 - 576.
- [3] 2 medical professors, Conduct, Medical Sciences, Vermun Education, 2017, 575 - 576.
- [4] Dosan Twelve Songs, Lee Won-jip, Dongbang, 26
- [5] Han Hyong-jo and others, “Reading Korean Classics 2, Humanist, 2006, 209.
- [6] Study on the Creation Process of New Dosan Twelve Songs, Dr. Andong University, 2018,49
- [7] Kim Seok-hoe, <The lyrical characteristics of Dosan Twelve Songs from the perspective of literature therapy>, , Literary Therapy Research, 23rd, 2012,23
- [8] Kwon Hae-chun, <Dosan Si-yi-ok> and <Eobu-sashi-sa>, its intention and rhetoric, Koshijo, 2011, Korean poetry literature association, Korean poetry literature association, 27th album, 220.
- [8] 32 medical professors, Confucius, Physics, Vermun Education, 2017,575

- [9][10][11]32 professors of medicine, “Mediological Studies”, Vermun Education, 2017,576 ~ 577
- [12]<Life and Thoughts of Toegye>, Sambo Cultural Foundation, 2020, 229
- [13]<Life and Thoughts of Toegye>, Sambo Cultural Foundation, 2020,115
- [14]Toegyejip II, Classical Government General, 1976,34
- [15]32 medical professors, Confucius, Physics, Vermun Education, 2017,575
- [16]kim mung hee<A Study on Literary Therapy Using Toegye Teacher’s Curing Thought and Sijo>, Korean Literary Therapeutic Society, A Study on Literary Care, 58,2021